



바다를 향하는 계절

글 김경인(시인)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물 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와가는
소리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울음이 타는 가을강」, 박재삼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나는 20대 중반에
갓 다다른 학생이었다. 박재삼 시인은 내 석사
논문의 테마였고, 나는 그 때 처음으로 이 시

를 진지하게 읽었던 것 같다. 대부분의 논문
테마가 그러하듯 그 시절 지겹도록 읽어 져힌
이 시는 나에게 미적 감동의 대상이기보다는
철저한 분석의 대상이었다. 더구나 나는 아직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또 무
모함과 용기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나이였기도
했다. 물로 비유하자면, 나는 물방울이 모여 처
음으로 이룬 실개천쯤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
실개천의 패기로, 나는 결코 나의 미래에는 서
러운 사랑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는 일 따위는
없으리라고 시건방을 떨기도 했다. 그러나 노
을이 지는 강을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고
묘사한, 수성(水性)과 화성(火性)이 절묘하게 버
무려진 이 아름다운 시는 내게 어떠한 파토스
도 주지 못하는, 말 그대로 잘 꾸며진 '시적 풍
경'으로만 오해되었던 것이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무심히 강을 건너다
나는 그만 노을이 지는 한강을 보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그날의 지하철은 한산하였고 좌석
에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과 사춘기에 막

접어든 소녀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수면 위로 벌겋게 번진 노을은 덜컹덜컹 한없이 느리게 달리는 지하철 차창으로 스며들어, 마침 창가에 앉아 계신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의 주름진 이마 위에 내려앉았다. 환하디 환하게 타오르는 능소화 빛의 노을 아래, 노인의 주름은 그가 살아온 삶의 내력을 선명히 드러낸 채 가만히 빛나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기쁜 첫사랑의 울음과 그 다음 사랑의 울음을 모두 끌어안고 이제는 바다로 나아가는 가을강의 운명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안녕하였고, 불안했던 20대를 훌쩍 뛰어 30대의 삶으로 무사히 건너왔다. 오늘과 내일과 어제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삶은 단조로웠지만 평온했으며 일상이 주는 무력감이 안정감의 다른 이름인지도 알게 되었다. 내가 알게 된 것의 목록에는 이런 것도 있다. 첫사랑과 다음 사랑의 끝이 왜 웃음이 아니라 울음인지, 좀처럼 그칠 수 없는 울음처럼 가을강에 온통 스며든 노을은 왜 타올라 사라지지 못하는지, 왜 가을 강은 불덩이가 된 채로 바다로 향해 가는지, 왜 그 강은 봄이나 여름이 아니라 가을의 강인지... 대체로 계절은 인생의 상징으로 많이 쓰인다. 바다를 앞둔 가을강은 아마 노년을 앞둔 시적 화자를 암시하는 시적 대상이었을 것이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에 사람들은 어찌하면 바다로 향하는 가을강처럼, 기쁨의 찬란한 순간을 떠올리고 행복해하기보다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쁨을

만각하는 것만큼 슬픔과 고독 속에 오롯이 있는 것도 삶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누군가 내게 어떤 시간을 가장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오후 5시와 6시 사이라고 답하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깊은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할 무렵인 10월의 오후 5시와 6시를 나는 가장 사랑한다. 그 시간은 맨드라미처럼 붉게 타오르던 노을이 서서히 지고, 사방에 번진 빛이 아스라이 사그라져 어둑어둑한 적막이 성큼 다가오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릴 적 마당에서 고무줄놀이며 소꿉놀이에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새 노을은 내가 살던 일본식 한옥의 창문에 밀려와 부딪히고, 이내 물려온 어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뜰 가득 넘치곤 하였다. 그 어둠은 뜰의 나무와 꽃들을 지우고 마침내 내 몸의 윤곽을 서서히 지워버리곤 하였다. 나는 지금도 무언가 허전하고 절망스러울 때면, 그 절대고독의 시간을 떠올린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에 들어앉아 있으면 나는 하염없이 나를 반성하고 그 반성의 힘으로 작고 소중하고 여린 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 내 비루한 삶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

이 글을 쓴 김경인 님은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1년 문예중앙에 시 '영화는 오후 5시와 6시 사이에 상영된다'로 등단하였습니다. 저서로는 시집 『한밤의 퀘트』(2007, 랜덤하우스)가 있습니다.